

일본의 노동분배율 하락 배경과 경제에 미친 영향

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90년대말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확대,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, 근로자의 고령화 진전 및 제조업비중 축소 등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

노동분배율의 하락은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일본 경제의 불황탈출에 기여하였으나 가계소득 개선 → 내수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경기회복의 지속을 저해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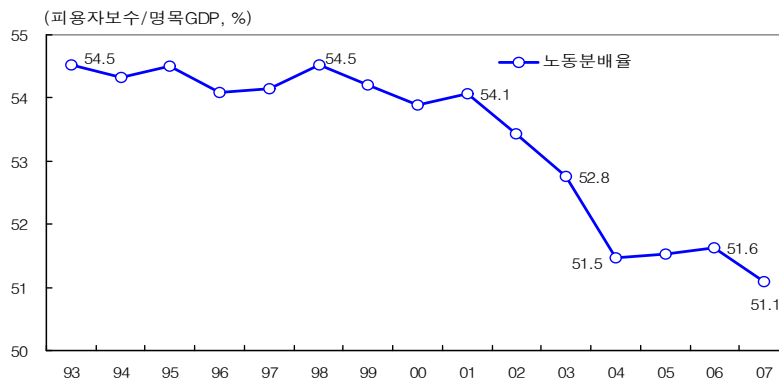
일본정부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분배율 하락이 기업의 고용행태 등 구조 변화에 기인한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 붐 세대의 완전 은퇴이전 노동분배율의 상승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
(일본의 노동분배율이 2002년 이후 급격히 하락)

□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90년대말 이후 하락세 지속

- 1998년까지도 54.5%에 달하였던 노동분배율(피용자보수/명목GDP)이 2002년 이후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7년에는 51.1%를 기록

일본의 노동분배율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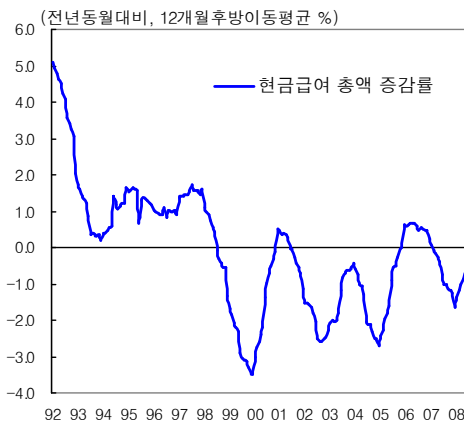
— 매월 근로통계(후생노동성)의 현금급여 총액도 1990년대말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지난 10년간 기업의 임금비용이 지속적으로 축소

○ 현금급여 총액*(월평균) 증가율은 1990년대말 이후 두차례의 플러스 증가율을 제외하면 1997회계연도(37만 1,234엔)를 정점으로 연율 1.1%의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7회계연도에는 33만 916엔을 기록

* 기준급여(정기급여와 체수당 등)와 특별급여(보너스 등)로 구성되며 기준급여와 특별급여는 각각 연율 0.7%, 3.0%의 감소율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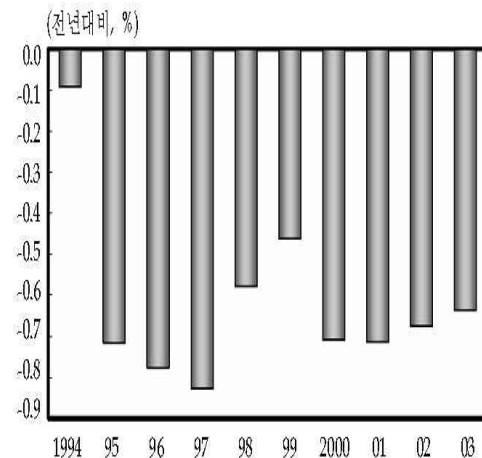
○ 일본 내각부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임금비용이 꾸준히 하락하여 일본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분석(2006.12.)

현금급여 총액 증감률 추이
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

기업 임금비용 증감률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(2006.12.)

(일본의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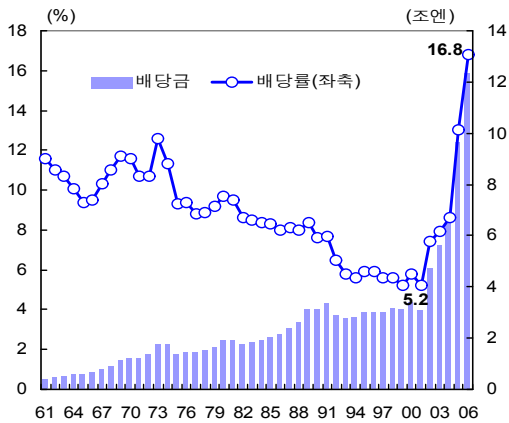
□ 노동분배율의 하락세는 기업의 주주중시경영,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과 더불어 장기 디플레이션과 노동조합 교섭력 약화, 근로자의 고령화 등 일본의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

— 일본 기업은 1990년대말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과잉고용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재무효율과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자세로 전환

— 또한 기업은 노동비용 삭감을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대신 성과·능력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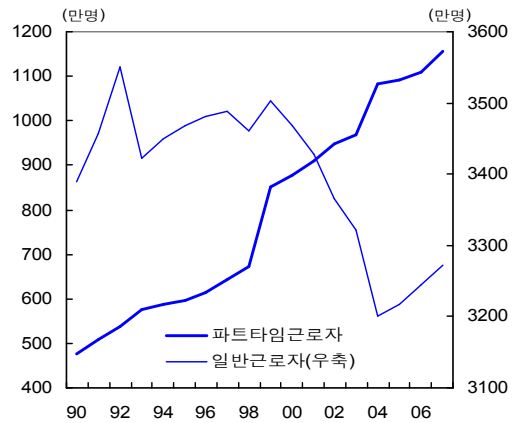
○ 1990년 13.0%였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2007년 26.1%로 상승(후생노동성, 매월근로통계)하였으나 이들의 급여(2007년 기준)는 정규직 근로자 급여수준의 23%에 불과

기업의 배당금 및 배당률 추이



자료: 일본 재무성

일반 및 파트타임 근로자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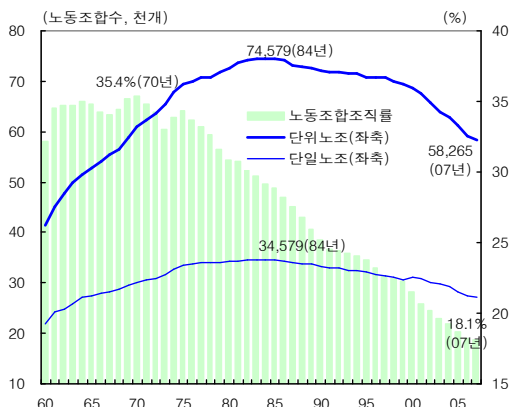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

— 해외생산 확대,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임금교섭력이 크게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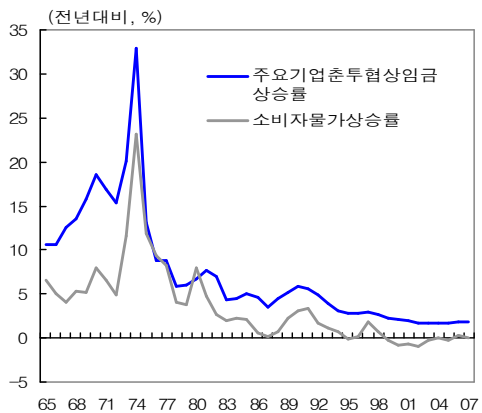
○ 노동조합은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보를 중시하였으며 임금교섭 지표인 소비자물가도 하락세 지속

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수 추이
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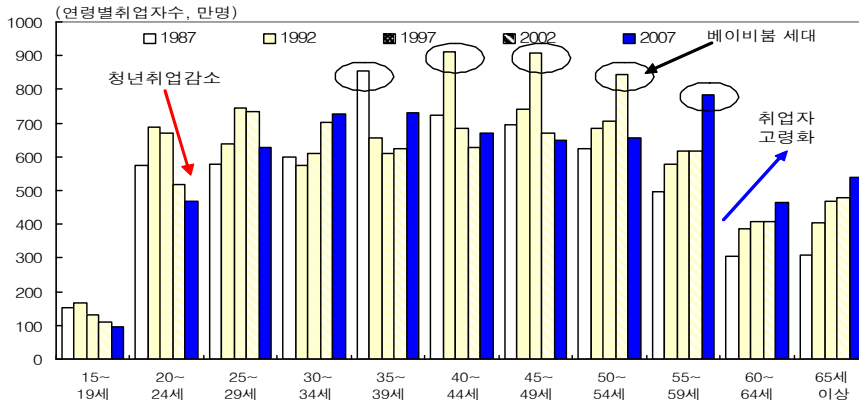
소비자물가 및 춘투임금 상승률
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, 총무성

- 또한 2000년대 들어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가 임금커브가 낮아지는 50세 중반(2007년부터 정년퇴직)에 이른 반면 청년 고용은 감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전된 것도 노동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

연령별 취업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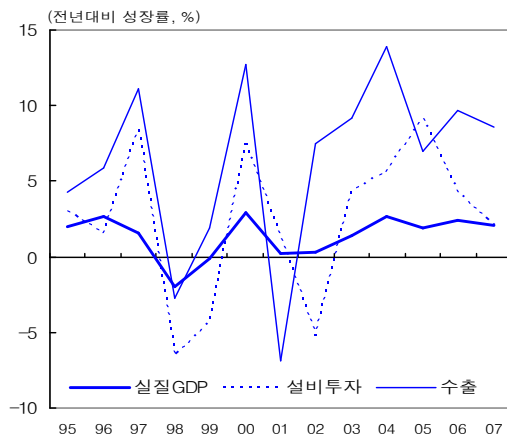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 총무성

(노동분배율 하락은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약화)

- 노동분배율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일본 경제의 불황 탈출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회복의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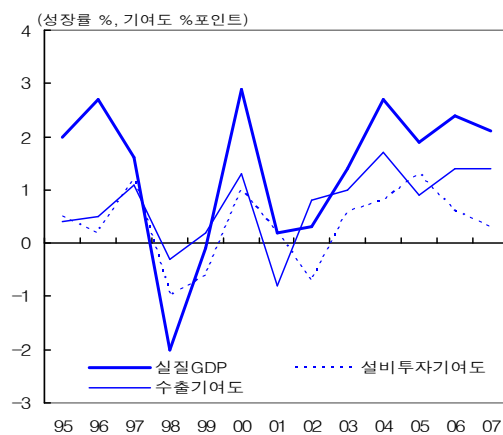
- 노동분배율의 하락은 일본기업(대기업·제조업)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익구조 개선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

실질GDP 및 기업부문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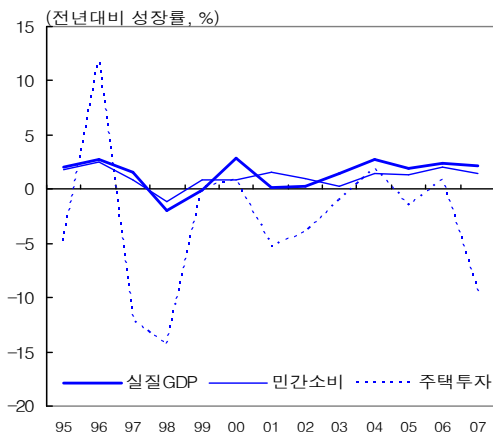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 내각부

기업부문 성장기여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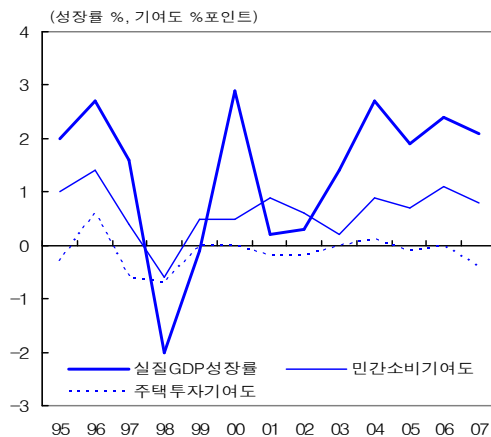
- 2002년 이후의 일본경제 회복은 세계경기 호조 지속에 따른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은 기업부문 주도 회복이라는 특징
- 그러나 노동분배율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개선 →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수출과 내수간의 괴리도 발생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지속력이 약화
- 실제 이번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기업부문의 성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소비나 주택투자와 같은 가계관련 부문의 성장은 실질GDP의 성장률을 하회
- 이는 일본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세계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실질GDP 및 가계부문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

가계부문 성장기여도 추이



(노동분배율의 상승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)

- 노동분배율의 하락이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기조로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- 일본 기업의 고용행태(비정규직, 파견사원 등 선호)와 임금억제자세가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일본이 사상최장의 경기회복을 지속하며 기업수익이 크게 확대되던 2004~06년중에도 노동분배율은 하락세가 주춤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전망
-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에 대비한 계속 고용제도 도입(2006.4.)의 영향으로 이들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시기가 연기된 점도 노동분배율의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
- 정년퇴직을 맞이한 근로자가 재고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금도 종전대비 40~50%가 삭감되는 조건
- 일본 내각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등의 영향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총액이 2010년까지는 3.0%, 2015년까지는 6.0% 감소할 것으로 예측

2015년까지의 임금총액 변화율 예측치

(2005년 대비 변화율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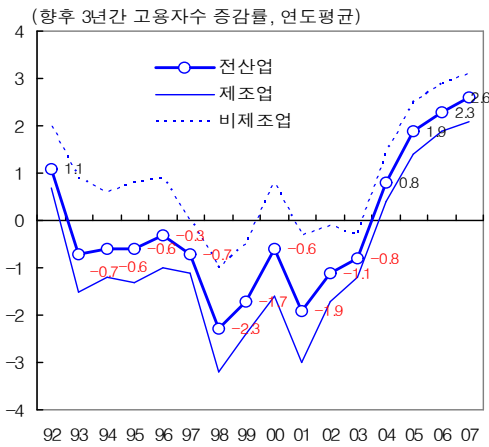
예측 기간	2005년 → 2015년		
		2005년 → 2010년	2010년 → 2015년
임금총액 변화율	-6.0	-3.0	-3.2
베이비붐세대 기여효과	-9.9	-8.0	-2.0

주: 임금 및 연령별 근로자비율을 고정(2005년 시점)하여 추정
 자료: 일본 내각부(2006.12.)

-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기업의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를 일본경제의 회복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려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
- 2008년 4월에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육아여성도 취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할 방침
- 다만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노동분배율이 완만하나마 상승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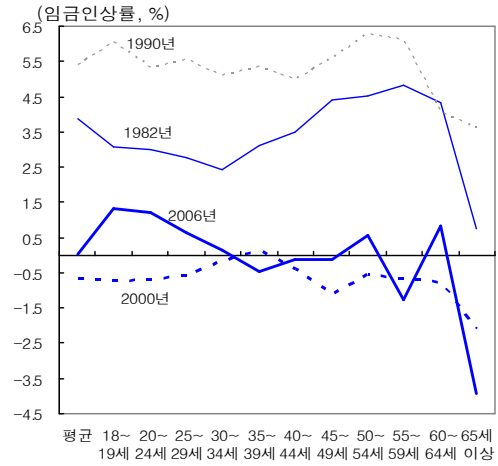
- 일본은행 단관(短觀) 결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향후 3년간의 고용예측조사 결과 기업이 고용에 의욕을 보이는 데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임금상승률도 고령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

기업의 3년후 고용예측 추이



자료: 일본 내각부

연령별 임금상승률 변화
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

- 또한 일각에서는 노동법 개정의 영향으로 기업이 종전처럼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억제하기 어려워진 데다

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출하여 실업률이 3%대 전반까지 하락하면 임금도 자연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제기